精神的 面에서 본 肺結核 患者와 그 看護

延世大 看護學科 4年·金 珠 熙

I. 서 언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택한 한 환자의 경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 결핵 환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찰해 보고저 한다. 본인은 여기서 일반적 폐결핵 환자를 크게 나누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비입원환자로 구분하겠다.

II. 비 입원환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 간호

1) 자택 치료 환자

대개의 환자들은 가정에서 부모 형제 친척들의 도움에 의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고 어느 시일내에서는 결핵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본다. 어떤 질환의 환자일지라도 환자는 정신적으로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보지만 더욱 결핵이란 진단이 처음 나려진 환자에게서의 정신적 부담이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다. 이 병이 이환율이 많은 전염병이며 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므로 치료에 긴 세월을 요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은 더 크다. 자기의 병으로 인해 자기 자식이나 가족에게 병을 옮기게 된다면 차라리 그는 지금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듯 그들의 병이 전염병이라는데 더욱 절실한 고민이 온다고 볼수 있다.

이와 아울려 그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반되는 고민이 한둘이 아니다.

학생이라면 몇일 앞둔 시험걱정, 계속해야하는 학업문제, 학교를 쉬게 된 경우의 낙오감, 친구들과의 격리감, 이런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될수있다. 또 사회인이라면 계속해야하는 연구, 실험, 완성되어가던 논문처리, 여러가지 미결된 사무처리, 직장을 뺏겨야 하는일 사회적 출세의 지연등의 고민이 있게된다. 또 주부이며 어머니인데 맡아하던 가사, 격리해야하는 자녀들의 교육, 특히 수유기였다면 젖을 떼어야 하는 모성으로서의 괴롬이 무엇보다 클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직업을 잃은 불안감과 동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의 경제적 타격이 크겠고, 미혼인때 결혼을 위한 모든 설계를 바꾸어야 하는일, 그에 따라 해결지어야 하는 연인과의 문제나 앞으로의 상대방 선택문제등, 이것은 어떤때 무시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기 쉬운 병상에서는 그를 위한 따뜻한 감정 하나가 그의 병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시할수 없다고 본다. 이미 결혼한자라면 미혼때보다는 실제적인 가정의 파탄을 우려하게 될것이고 그에 따른 자녀들의 양육문제, 장래문제를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주위의 걱정을 가진 자신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실제의 걱정도 또한 없지 않다.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것이며 어떤 약을, 어떻게 안정을, 영양섭취는, 식생활, 기거생활은 어떻게 누구의 간호를 받으며 할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집결한듯한 모든 고민을 걸머진 이들 결핵 환자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그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심히 힘든 문제이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결핵환자에게 정신적 안정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족 전원은 이 불행해진 결핵을 가진 가족을 위해 진심에서 울어나온 간호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가장 가까운 가족이 평상시 그가 맡아하는 일을 대신 맡아 준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마당쓰는일, 방 치우는 일, 밥짓는 일등의 사소한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그 얼마나 가족전원에게로 부터 사랑으로 옹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

2. 만나는 가족마다 그의 증상에 대해서 일일히 물어 준다. 오늘 체온은 어떤지, 식은 땀은 나지 않는지, 약을 시간 맞추어 먹었는지, 식사는 좀 했는지, 무엇 원하는 것이 없는지, 그가 무엇을 제일 염려하는지등을 종종 물어서 환자의 시시 각각 변하는 감정을 잘 붙잡아 준다.

3. 진심에서 울어난 부드러운 태도로써 결핵이란 전염병이긴 하지만 조심만 하면 가족에게는 걱정끼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줄수 있다.

4. 경제적 걱정은 되도록 환자가 없는 곳에서 한다.

5. 보건소나 결핵협회같은 곳에 연락하여 환자와 가족이 함께 알아둬야 할 일들을 쓴 소책자들을 구입하여 조용한 시간에 읽게하던지 읽어준다.

6. 침식에 불편이 없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이 늘 보살펴 줘야하며 되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줄 것이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외에 쓸데 없는 잡념에 몸을 해칠 여유를 주지 말자는 것이다.

7. 영양을 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몇가지 간식을 늘 준비해 둠으로써 그를 생각하는 가정의 성의를 보이도록 한다.

8. 식사는 따로 차려 주더라도 꼭 먹는것을 지켜보아주고 그의 입맛의 변화와 섭취정도를 참작해 둔다. 또 여러가지 얘기를 들려주어 그의 정신에 집착된 문제라도 식사하는 중에는 다 잊도록 만들어 준다.

9. 피로하지 않을 범위내에서 그가 일상생활에서 즐기던 Radio, T. V. 또는 소설등을 즐기게 해 준다.

10. 평소에 종교를 가진자라면 더욱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게 해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계기에 결핵자에 대한 신

앙심을 갖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다.

위의 몇가지 조목을 들어 얘기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로 하여금 낙망하지 않고 병에서 꼭 이겨야 겠다는 결심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다. 결핵이란 옛날과 달라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안정만 취하면 반드시 완치할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 먼저 확신을 갖고 환자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2) 요양원 환자

결핵요양원이라면 대개의 경우 만성환자의 집결소라고 볼수 있다. 여기 환자들은 자기의 병이 하루 이틀에 낫지않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 하기가 일수이다. 또 그 반면 지나치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다. 밤이 아닌 낮이라도 컴컴한 복도에 나가길 주저하고 홀로 잠잘수 없도록 심한 공포감을 갖는 수도 있다. 또 딴면으로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의 테두리에 권태를 느끼고 매일 보아야 하는 Mask 쓴 같은 간호원의 얼굴을 대해야 하는데서 이렇게 살기 보다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너무 익혀온 자기병의 부문에 대한 깊은 의학상식으로 매일 자신을 진단하고 혼자 판결을 부친다. 그렇게 해서 신뢰치 않기 때문에 발작하는 신경질증을 점점 기르게 될것이다. 여기에다 예의 경제적 고민까지 합하게 된다면 그는 요양의 미명아래 자신을 더욱 학대하는 생활을 매일 하게 될것으로 안다. 이런 걱정과 정신상태를 가진 요양원 환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는 문제는 극히 힘든 일이다.

1. 요양원에 있는 동안 환자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좋은 취미 하나를 기르도록 제안해 준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 소질 정도를 따라서 꽃 가꾸기, 꽃꽂이, 조화, 수예, 창작 그림, 공예 사진촬영, 바둑등등이 있을수 있다.

2. 좋은 습관 하나를 붙이도록 권한다. 하루 한 페지의 독서라든가, 계통을 정해놓고 그방면의 잡지, 신문, 서적등을 읽고 체집하는 일, 서열이 있는 책을 그 차례대로 읽어 가는일, 성경이나 기타 좋은 책을 하루 조금씩이라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표시하는 일등의 좋은 습관은 헤일수 없이 많다.

위와 같은 좋은 취미, 좋은 습관을 기르므로써 기르는 동안 자기 성격의 단점을 시정할수 있고 자기의 모든 고민도 이런 방향으로 눈을 헤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본다. 대개의 경우 요양생활이란 무의미한 퇴보적 생활이라고 가슴아퍼 하나, 이런 기회가 있으므로 해서 불행한 처경에서나마 보람있는 일을 할수 있었고 또 했다고 자부하게 된다면 그는 생의 절망도, 포기도 않을것이며 더 큰 생의 기쁨과 생의 의욕을 느끼고 병에서 이기려는 결심이 굳세어 질것으로 안다.

이상과 같이 입원하지 않은 일반 결핵환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III. 결핵병동 입원환자의 정신적 상태와 그 간호

1) 내과환자

처음 내과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갑자기 기침이 심하고 고통을 느끼며 입원하

게 되는자, 자택치료에서 악화되어 각혈을 하며 들어오는자, 만성이 되어 이미 여러 진찰소와 요양소를 거쳐서 들어 온자, 다른 병을 치료 받으러 왔다 우연히 결핵이 발견된자 등등이 있다. 그 경우에 따라 그들의 정신상태나 감정 고민등은 다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내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술을 받을수 있는경우인지. X-ray 촬영 결과와 기타 약물요법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차도를 보이는지 하는 자신의 병의 정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표면적인 관심사 이면의 심리를 잠간 생각해 보면 이미 결핵병인으로 치부된 몸이지만 그렇다고 생을 포기 할수는 없다. 악착같이 살아야 하겠다. 조금이라도 희망적이라면 좋겠다.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몇배의 장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심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금직이 아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 또는 정반대로 나를 병 때문에 버린 가족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병에서 이기고 봐야 겠다는 사람도 있다. 실로 결핵병동에 입원한 자는 생사의 결판을 건 건쟁에 스스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이런 환자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끌어 줘야 좋을 것인가를 잠간 생각해 보았다.

1. 입원후 처음 일주일 정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절대안정 하도록 해 준다.

2. 입원 전의 모든 치료와 일들을 다 무로 돌리고 새 출발의 기분을 갖도록 일러 준다.

3. 가족의 문제나 직장문제, 경제문제 등을 최소한 일주일의 절대 안정기간에는 결코 생각하지 말도록 얘기한다. 생각하지 말래서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동안만은 그 무엇보다 제일 중한 환자자신의 생명문제를 제일문제로 보도록 권한다.

4. 일단 피로운 증상이 없어진 환자에게는 이제로 부터 중요한 본격적 치료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결핵치유란 자신이 느낄수 있게 빠른것이 아님도 아울러 인식시킨다.

5. 결핵을 두려워 하지않고 싸울때세만 갖춘다면 모든 병이 그러하듯 점차 정복될수 있다고 늘 얘기한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내과 환자의 대부분은 성적 욕구에 의한 갈등이 가장 많다고 보아 온다. 오늘날 의학은 과거 성적 욕구를 강력히 거부한 것에 반하여 어느정도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과도한 욕구는 피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한 보상이 될만한 일들을 찾아 주는 것이 내과환자 간호에 큰 문제라고 본다.

2) 수술전 외과환자

이들은 대부분 내과에서 수술대상으로 인정이 되어 넘어온 사람들이다. 갈은 결핵환자 중에서도 수술대상이 된다는 경우는 불행중 다행한 경우가 된다.

이 환자들의 정신적 불안이나 공포란 앞으로 자기가 받을수 있는 수술을 앞에 놓고 여러가지 갈등에 서게 된다.

정말 수술이 성공되어 결핵이란 악착스런 병에서 해방되는 꿈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수술 도중 죽는 것은 아닌가? 폐를 떼어 내고도 살수 있을까, 혹은 늑골을 짤라 내고도 사람 행세를 할수 있겠는가? 수술이 성공된다 하여도 병신이 될지 모른다. 아니 엄밀히 말해 병신이 된다. 흠없는 몸에 칼을 대는것 보다 그대로 앓는날 까지 앓다 죽게되면 죽는 편이 낫지 않은가, 앞으로 얼마 더 살기 위해 생명을 걸진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만일 모든일이 순조로워 수술이 성공되고 완쾌되어 퇴원이 될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다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 가정이 나를 받아 들일 것인가? 직장이 나를 용납할 것인가? 상대자가 나를 반겨 맞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크게 그의 결심을 방해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환자에게 어떻게 모든 난점을 물리치고 태연히 수술에 임하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점이다.

1. 수술시기는 한번 놓치면 놓치는 대로 다시 얻기 힘들다는 것을 차근 차근히 얘기해 준다.

2. 수술의 시기를 놓쳤든지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부럽게 여기는지를 예예로 제시해 준다.

3. 수술의학과 마취학의 급진적 발전을 설명해 주고 실제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을 직접 목격하도록 해 줄수 있다.

4. 성공적 수술후 완전 회복되어 다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대로 얼거해 주기도 한다. 환자가 알수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5. 여자환자가 두려워 하는 미적인 신체변화에 대해서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6. 수술을 받는 것만이 가장 깨끗히 또 빠르게 결핵균을 몸에서 제거할수 있는 길이라고 일깨워 준다.

이런 다각적인 권유방법에 의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협심한다면 대개의 경우는 수술을 승낙하게 된다고 본다.

3) 수술후 외과환자

수술로 인한 심한 고통과 더불어 자기의 수술이 과연 성공인지에 대해 모든 신경을 모은다. 어떤 합병증이 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무척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대부분 수술전 고민과 마찬가지이지만 깨어진 폐의 볼 모양 다시 수술전으로 환원할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은 클수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운직여야 할때 마다 짜증과 겹쳐 오는 것은 수술승낙에 대한 후회이기 쉽다. 이런 수술후 환자에 대한 마지막 감정의 조절은 퍽 중요하다.

1. 우선 고통을 덜기위한 최대의 간호를 아끼지 않는다.

2. 수면을 잘 취하도록 해 준다. 모든 것을 인간의 힘 이상의 것에 맡기고 일체의 잡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애기 해 줄수 있을 것이다.

3. 고통은 오래 가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미 넘겼다고 일러 줄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사 지시에 따라 기침이나 심호흡, 운동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회복은 빠르다고 충고한다.

4. 오늘의 고생이 심한 만큼 내일의 기쁨이 클것이 아니냐고 격려 해 준다.

.5. 오랜 시일에 자란 병을 없애는 데는 그 만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인식시킨다.

6. 완전한 회복은 본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가족은 물론 사회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7. 여지껏 겪어온 병에서 탈피되어 새로운 생활인으로 새 출발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8. 이제 부터는 사회의 어느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 수술을 받은 몸은 영구히 일종의 불구자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시정해 줘야한다.

위와같이 대강 일반적인 결핵환자의 정신적 갈등과 그에 따른 몇가지 본인의 제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택한 한 인물에 대해서 그의 정신적 상태와 욕망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간단히 알아 본 대로 얘기 하련다.

IV. 선택된 자의 경우

십여년간 결핵을 가지고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싸워온 그의 병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논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가장 수술을 갈망했었기 때문에 수술전 환자가 가진 불안이나 공포에서는 제외된다. 오히려 그는 가장 기쁘게 수술을 받았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심적 고통이나 과거와 지금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던져 묻어 보았다.

1. 처음 결핵이란 진단을 받은 때의 심정은?

어린 때이기 때문에 잘 기억되지 않는다.

2. 수술권유를 받은 때의 심정은?

가장 기뻤다. 그러나 수술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컸다.

3. 수술후 부터 지금까지의 큰 고민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다. 머지않아 퇴원이 되어도 찾아갈 집이 없다.

4. 가족에 대한 불만은?

헤일수 없이 많다. 더욱 어머니의 재가는 큰 불만이다. 어머니가 재가 하지 않았더라도 난 병에 걸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5. 주치의에 대한 불만은?

수술 경과가 좋지 못해서 고생했다. 그러나 끝까지 꾸준히 보아준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싶다.

6. 간호원에 대한 불만은?

좀더 가깝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섭섭했다. 격리환자이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밝이 말없이 돌봐주었다는 것은 잊을수 없다.

7. 결핵병동 직원의 환자에 대한 태도중 가장 싫었던 것은?

찡그린 얼굴이다.

8. 또 가장 섭섭했든 일은?

긴 얘기를 회피한다. 마음대로 형실을 돌아 다닐수 없게한다. 또 mask 쓴 얼굴은 언제나 쓸쓸한 감정을 갖게한다.

9. 치료기간중 가장 피로했던 일은?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

10. 앞으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자신은 있는지?

지금 까지는 주저된다. 전에 하던 직업을 계속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1. 결혼문제를 생각하는가?

물론 결혼은 하고 싶다. 단지 나와 결혼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12. 가족이나 친척들과 병으로 인해 생긴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퇴원후 그들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직 감정을 풀수는 없다 끝까지 풀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그에게 지금 우리가 줄수있는 마지막 감정의 정돈을 몇가지 말해본다.

1. 그의 어머니에 대한 심정을 바꾸게 해야한다. 어머니의 재가와 결핵이란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며 또 그의 어머니의 재가는 가장 정당한 처사였다는 것을 기회있는 대로 비근한 예를 들어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가지도록 이끌어 줄수 있다.

2. 수술의 결과란 본인이나 의사나 누구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자연의 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일러준다. 어떤 의사도 자기의 환자가 오래 고생하길 원하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 아닌가를 얘기해 줄수 있다.

3. 앞으로는 건강한 사회 생활인으로 되기 위해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애써야 하고 한번 잃었다 찾은 건강을 소중히 할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4. 건강한 사회인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나 친척들과 원만해져야 한다고 일러준다.

5. 이런 모든일이 잘 진행된다면 결혼문제는 시간이 해결할것을 알려주고 끝까지 희망가운데 건실한 생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 줄수 있다.

6. 이 사람의 경우와 같이 고독한 환경에서는 그가 항상 의지할수있는 종교를 제시해 줄수도 있겠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심이란 놀라운 정신력을 인간에게 일러주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V. 결 언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적으나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얘기에 그친듯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무관심하기 일수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정신적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상식적 문제부터 해결짓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서 위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누구나 알듯 신경이 예민하다는 결핵환자에 대한 피상적이지만 총괄적인 불안 공포 욕구에 대한 추적을 이런 기회에서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여기에 든 몇가지 이렇게 하면 해결지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볼여본 본인의 소견은 전혀 무지한 공상론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여기서 생각해 본 그때 그때 환자의 문제거리의 전부는 될수 없을 지라도 적어도 그것의 테두리에 속한다는 것은 알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자위해 보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누구던지 앞으로 결핵환자를 접하게 되는 사람이 그들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게 된다면 퍽 다행한 일로 여긴다.